



기획재정부

보 도 자 료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보도 일시	배포시	배포 일시	2022. 9. 22.(목) 07:30
기획재정부 <총괄>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	책임자	과 장 김귀범 (044-215-2750)
		담당자	사무관 이상홍 (lsh0622@korea.kr)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9.22.(목) 07:30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였음

* 참석자: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주현,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 금일 회의에서는 미 FOMC의 금리인상 결정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우리 금융시장에의 영향 및 향후 정책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 (별첨) 경제부총리 모두발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기획재정부 <총괄>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	책임자	과 장 김귀범 (044-215-2750)
		담당자	사무관 이상홍 (lsh0622@korea.kr)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	책임자	과 장 오재우 (044-215-4710)
		담당자	사무관 이용준 (cjeye86@korea.kr)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채과	책임자	과 장 장보현 (044-215-5130)
		담당자	사무관 조선희 (whwns56@korea.kr)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시장분석과	책임자	과 장 고상범 (02-2100-2850)
		담당자	사무관 이정찬 (jeongchanlee@korea.kr)
한국은행	조사국 조사총괄팀	책임자	팀 장 최창호 (02-759-4181)
		담당자	조사역 진형태 (htjin0603@bok.or.kr)
금융감독원	감독조정국 거시감독팀	책임자	팀 장 이민규 (02-3145-8172)
		담당자	선 임 송하균 (larrysong@fss.or.kr)
국제금융센터	리스크분석본부	책임자	본부장 정형민 (02-3705-6130)
		담당자	부전문 황재철 (jchwang@kcif.or.kr)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국제금융시장 평가 】

최근 국제금융시장은 높은 인플레이션 지속¹⁾에 따른
주요국 통화긴축 가속화로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모습입니다.

이달 들어 유럽중앙은행(ECB)이
사상 최초로 75bp 금리인상을 결정한데 이어,
금일 새벽 미국 연방준비이사회는 6월과 7월에 이어
세 차례 연속으로 75bp 금리인상을 단행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연준 위원들이
내년까지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가고,
올해 남은 두 번의 회의에서는 125bp 추가 인상을 전망²⁾하면서,
네 차례 연속 75bp 인상 가능성도 열어두었습니다.

미 연준의 파월 의장 또한, 제약적 수준까지 금리를 올리고,
현재 기조를 상당기간 유지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인플레이에 대한 강한 대응 의지를 재확인하였습니다.

연준의 향후 긴축 경로 등이
당초 시장의 예상 수준을 뛰어넘고
성장 전망이 큰 폭 하향 조정³⁾되면서,
금일 새벽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다소 확대⁴⁾되었습니다.

1) 美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비, %) : ('22.3)8.5 (4)8.3 (5)8.6 (6)9.1 (7)8.5 (8)8.3

2) 점도표상 기준금리 전망 수준('22.6월→'22.9월): ('22말)3.25-3.5% → 4.25-4.5%
('23말)3.75% → 4.5-4.75% ('24말)3.25-3.5% → 3.75-4.0% (25말, 신규 발표)2.75-3.0%

3) 연준 성장전망('22.6월→'22.9월, %): ('22)1.7 → 0.2 ('23)1.7 → 1.2 ('24)1.9 → 1.7 ('25, 신규 발표)1.8

4) (다우)△1.7% (S&P)△1.7% (美 국채금리 2yr)+8bp (美 국채금리 10yr)△3bp (달러)+0.8% 절상

【 정책 대응방향 】

기재부와 한국은행·금융위·금감원 등 경제팀은 긴밀한 공조하에 “넓고 긴 시계”를 견지하며 현 상황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한동안 전세계적으로 높은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 있는 만큼, 우리 뿐 아니라 주요국 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단기간 내 변동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리해나가는 한편, 내년 이후의 흐름까지도 염두에 두고 “최적의 정책조합(policy mix)”을 모색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앞으로 발생가능한 주요 리스크에 대한 시나리오와 상황별 대응조치를 선제적으로 점검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경제팀은 미 연준의 고강도 긴축, 중국의 경기 둔화 가속화, 신흥국 위기 가능성 고조 등 다양한 시나리오별로 금융·외환시장 및 실물경제에의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위기 징후를 감지할 수 있는 핵심 지표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과거 경제·금융위기시의 정책대응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활용 가능한 정책수단들을 신속히 가동할 수 있도록 종합·체계화하였고 필요시 분야별·단계별 시장안정조치를 적기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달러 환율 흐름과 관련해서는,
환율 수준 이면에서 가격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 요인들에 대해 촘촘히 관리해나갈 것입니다.

연기금 등 국내거주자의 해외투자 흐름,
수출·수입업체들의 외화자금 수급애로 해소 등
외환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시장상황에 맞춰
단계적으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변동성이 높아진 국내 채권시장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한국은행 등이 함께 정책공조를 통해
시장 안정을 위해 가능한 조치들을 적극 강구하는 한편,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 등
국채 수요 저변을 확대하는 노력도 병행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경제의 주요 대외지표인 경상수지가
향후 안정적 흐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출활력 제고 및 관광·컨텐츠 등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에너지 수입량 감축 등을 위한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방안도
조속히 마련·시행하겠습니다.

【 마무리 말씀 】

일각에서는 최근의 시장 흐름을
불안하게 보는 측면이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금융위기 등에 비해
현재 우리의 대외건전성 지표들은 양호한 상황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불안해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미국·유럽 등의 고물가 대응을 위한
고강도 금융긴축이 가속화되고 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악화에 대한 우려도 더욱 커지면서
금융·외환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만큼
정부와 중앙은행 등은 원팀 정신으로
상시 긴밀한 정책공조를 바탕으로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발언 종료)